

## 대량 생산으로의 준비 시대(다이쇼·쇼와 초기)

메이지 기의 기물 제조는 톱이나 손도끼(나타)에 의한 완전한 수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작업은 토막(원목) 자르기·큰 쪼개기·거칠게 자르기·작게 쪼개기와 기물 하나하나를 마무리하는 공정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었고, 게다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제조 과정을 기계화하려는 시도는 메이지 말기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생산의 증대를 염원하며 기물 목지의 기계에 의한 시작기에 들어서면서 발로 밟는 식이나 동력에 의한 기계가 잇따라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조각 기물, 스탬프 기물 제법이 도입되어 새 제품으로 수요액은 더욱 생산 증가로 박차를 가하게 되어 잇따른 생산 기계의 탄생과 맞물려 대량 생산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목지 관계는 이렇게 선인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점차 기계화가 진행되었지만, 쓰기 장인의 체제는 여전히 도제 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쓰기 장인 아래에서 '가키코 (書き子)'라 불리는 제자가 가는 마키에 붓을 사용하여 옷칠로 초서체 또는 해서체로 씁니다. 처음에는 보병부터 시작하여 금은이나 비차, 각행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는 5 년에서 10 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쓰기 품삯이 저렴했지만 좋은 용돈이

된다고 하여 초등학교 2, 4 학년 무렵부터 쓰기 장인의 제자로 들어가 기술을 익히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하급 기물 쓰기의 담당자는 학동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